

# 『논어』 人物 研究와 선진시대의 문헌

이규필 \*

- 
- I. 들어가며
  - II. 상고시대의 聖王과 그 呼名의 의미
    - 1. 堯: 仁과 博施濟衆, 그리고 中
    - 2. 舜: 孝, 無爲, 그리고 君子
    - 3. 周公: 攝政과 代理, 三家와 관련하여
  - III. 先秦時代 문헌자료와 『논어』 속의 인물
    - 1. 先秦時代 1차 문헌자료
    - 2. 先秦時代 2차 문헌자료
  - IV. 나가며
- 

## ■ 국문요약

본고는 『논어』 인물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論語』의 탄생 과정과 名義에 대한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제자와 사람들 속의 공자'의 의미를 조명해 보았다.

첫 작업으로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고대의 성인 堯와 舜과 周公이라는 인물을 고찰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堯에게서는 仁政과 博施濟衆, 그리고 中이라는 개념을 찾아 발견하여 조명하고, 舜에게서는 孝, 無爲政治와 君子의 개념에 대해 그 원형과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주공에게서는 攝政의 전통 속에서 代理 정치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三家에 대해 공자가 보인 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밝혔다.

---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 E-mail: 1900908@knu.ac.kr

『논어』속 인물 연구는 선진시대 문헌 자료 검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해당 문헌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로 본고에서는 각 문헌에 대한 정밀한 탐색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목적이다. 때문에 관련 정보의 집성과 치밀한 고증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진시대 문헌자료의 성격에 따른 인물 정보의 수록 양태는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논어』인물 연구의 첫걸음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선진시대 문헌들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요 注釋書 고찰도 필요하다. 또 元明 이래로 『논어』인물 정보를 고찰한 중요한 저술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검토와 고찰, 그리고 각 문헌들의 기록들을 상호 비교 검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하는 일은 모두 긴 시일을 요하는 지난한 작업이라 예상된다.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공자, 논어, 제자, 堯, 舜, 周公, 선진시대 문헌

## I. 들어가며

『論語』는 書名부터가 注目을 요한다. ‘論語’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漢書』를 비롯한 많은 문헌과 학자들이 남긴 해석이 있다.<sup>1)</sup> 이런저런

---

1) 『論語』의 書名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漢書』「藝文志」에서 언급하고 있다. 내용은 대개 ‘공자가 제자들이나 時人들에게 응답한 말과 제자들과 대화한 말을 당시 제자들이 기록하였는데, 이를 공자 사후 門人들이 纂輯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文選』「辯命論」에서는 ‘仲弓의 문도들이 공자의 말을 追論한 것’이라고 하였다. 劉熙의 『釋名』「釋典藝」에서는 ‘論’을 ‘倫’의 의미로 보아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윤리적인 내용을 모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邢昺은 유희의 설을 계승 발전시켜 ‘倫’을 撰次의 의미로 해석하여 ‘撰語’의 뜻으로 보았다. 袁枚는 ‘議論과 語人’으로 해석하였다. 何異孫은 ‘공자의 遺語를 討論한 책(討論文義)’으로 보았다. 또 許慎의 『說文解字』의 글자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論은 논리적이고 합리적(循其理 得其宜)인 말이고 語는 타인과 答問하거나 辯難하는 말이 된다. 이후 여러 고증학자들이 관련 설을 퍼냈는데, 대략 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석이 있지만 요약하면 어떻게든 ‘스승의 語錄’ 또는 ‘스승과 제자들의 대화’라는 의미를 넘지 못한다. 실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냥 이러한 훈고적 해석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孟子』나 『莊子』 등 무수한 諸子書들도 다 論語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오직 『論語』만이 ‘論語’인가? 왜 『孟子』나 『莊子』처럼 『孔子』가 아닌가.

『論語』의 書名은 지성사적 전통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기 동아시아 고전들의 書名은 주로 한 글자였다. 하나의 글자에 그 책의 성격을 명확히 담았다. 『詩』는 노래 모음집이고, 『書』는 고대 제왕의 역사를 기록한 公式 書物이고, 『易』은 占書이다. 『記』(혹은 『禮』)는 禮에 관한 記錄이다. 두 글자로 된 책의 첫 출현은 『春秋』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상의 문헌들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그 필요와 成書의 주체가 國家라는 것이다. 주체인 국가의 입장에서 成書 목적이 매우 분명하며, 정치와 외교에서 현실 효용성이 강하다. 여기에다 나름의 내적 완결성을 갖춘 체계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sup>2)</sup> 동아시아 문학의 원류인 『詩』도 이러한 범주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담은 노래를 독자적으로 펴내는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論語』는 이런 점에서 위에 열거한 고전들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春秋』를 이어 본격적으로 두 글자 書名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史的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작성의 주체가 國家

2) 成書의 주체나 체계의 내적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五經 가운데 『禮記』는 다소 예외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禮記』의 경우 공자의 후계자들 가운데 禮學의 계승자들에 관한 내용이 많은 데다 또 戴德이나 戴聖과 같은 전문적인 권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논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禮記』에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성격의 내용이 없지 않다. 내적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요연하고 일관된 흐름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기』는 『논어』나 『맹자』와 달리 적어도 각각의 편이 특정 주제에 따라 편집되어 있다. 『周禮』는 말할 것도 없다.

가 아니라는 것이다. 작성 목적도 그러할 뿐 아니라 成書의 목적과 방향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정치 외교적 실용과도 무관하다. 게다가 『論語』를 두고 체제와 구성 또는 편명과 관련하여 내적 완결성을 운위하기도 쉽지 않다.

‘道’라고 하는 政治理想과 哲學을 지향하는 一群의 학자 집단이 몇 세대에 걸쳐, 모종의 사명감이나 억누를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스승이 남긴 말씀’을 묶어 하나의 책을 만든 것인데, 이것은 특정 지성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미증유의 학술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전 시기 인류사에서 그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대 사건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완성하는 과정은 일종의 신앙심이나 종교의식에 의한 어떤 행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焚書의 탄압과 박해를 넘어 流轉되고 완성되는 『論語』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論語』를 볼 때 상술한 지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당신 스스로 ‘나는 生知가 아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정도로 생전에 이미 추앙받았다. ‘인류의 탄생 이래 미증유의 스승(生民未有)’이라 추앙받은 일이 특정 제자 몇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三千 제자라는 설도 그렇다. 거기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 가능성을 마냥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시 大夫家를 이루는 인적 구성이나 물질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또는 ‘後車數十乘 從者數百人’을 자랑하던 맹자 학단의 규모를 참고해 볼 때 三千 제자의 설은 과장이 아닐 가성도 배제하기 어렵다.<sup>3)</sup>

요컨대 공자는 일찍이 춘추 열국의 정치인들과 학단의 제자들로부터

---

3) 굳이 맹자와 비교해 본다면, 『孟子』라는 문헌에 그 뚜렷한 증거를 남기고 있듯이 맹자에게는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편이었다. 단순히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학단의 규모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할 바 없는 추앙을 받았는데, 그 존경과 추앙의 크기 또는 성질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인물과도 견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자에게는 확실히 사람을 감화시키는(감동이 아니다) 무언가가 있다. 하나하나가 진지한 철학자이기도 했던 제자들이 경양해 마지않던 스승의 그 ‘말씀’을 평생 외우고 쓰고 또 삶에 옮겨 실천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몇 대를 이어 전수했으니, 『논어』의 탄생은 어쩌면 운명적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공자가 자신의 언행과 대화를 후대에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손사래 치며 ‘生知之 聖’을 사양했던 공자에게서는 그런 가능성을 짐작해 볼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논어』 편찬의 시작은 그 처음부터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승의 말을 외워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술로 전한 것에서 비롯한다. 제자들이 없었다면 『논어』도 없고, 저 공자마저 희미한 전설 속에 어떤 추상화된 몇 개의 조각 이미지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공자는 우뚝한 성인으로서 고립된 존재로 있을 때가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수천 년의 벽을 깨고 우리들 곁으로 와 웃고 우는 영원한 스승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어』는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인 책이다. 『논어』는 단순히 ‘근엄한 스승의 語錄’이 아니다. 공자와 함께 등장하는 ‘말씀 속에 담긴 그들의 이야기’이다. 有朋遠來의 즐거움은 그에 관한 증언이다. 요컨대 ‘그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공자는 제대로 살아난다. 『논어』의 인물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논어』 속 인물에 대한 관심이 종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한정하자면 정조 시대에 『論孟人物類聚』가 나왔고, 1984년에 안성호가 공자 제자들을 연구하여 석사논문으로 제출하였으며, 1986년 정종이 『논어와 공자』의 부록에서 105인의 인물을 소개한 바 있다. 또

1988년에 이성규가 크릴의 저서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1949)를 『공자: 인간과 신화』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는데 그 속에 「제자」 편이 있다. 1988년에 윤종섭이 제자에 대한 연구로 다시 석사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재하가 2009년에 『수사고신여록』을 번역하였다. 이러한 흐름 아래 2001년에는 김경옥이 冉有에 대해 집중 고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갑규가 제자들의 생애 논란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여 석사논문으로 발표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사실 정보의 추적과 고증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제자별로 연구가 심화되는 고무적 현상도 있으나 그 범위가 대체로 주요 弟子 몇몇에 한정되는 한계도 분명하다. 본고는 그 한계와 경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sup>4)</sup>

## II. 상고시대의 聖王과 그 呼名の 의미

『논어』에는 200인 이상의 인물이 나온다. 성격에 따라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古代의 聖王과 賢者’, ‘周나라 建國의 주역들’, ‘魯나라를 비롯한 列國의 정치인들’, ‘異學의 인물들과 세상을 피한 隱者들’, ‘惡人과 奸人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弟子 그룹’이다. 『논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인물군은 물론 제자 그룹이다. 『家語』 권38에 「七十二弟子解」가, 『史記』 권67에 「仲尼弟子列傳」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방향을 조금 전환하여 상고시대의 聖人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등장 인물 모두가 『논어』의 주인공이라고는 했지

4) 역저서와 논문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역저서 및 논문, 그리고 한중일의 관련 저서들은 〈참고문헌〉란을 참고하기 바란다.

만, 역시 중심은 공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자가 상고시대 성왕을 呼名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공자의 일생과 사상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제자들에게 설과한 道의 의미가 구체성을 띠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함께 토론한 공자의 도, 그 형성의 근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물 연구의 첫걸음을 상고시대의 聖王과 周나라 건국 인물들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짧은 지면에서 한 번에 모두 다룰 수 없기에 堯와 舜과 周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 1. 堯: 仁과 博施濟衆, 그리고 中

堯의 이름은 『논어』에 4회 나온다. 단독으로 호명된 것이 1회, 舜과 병칭된 것이 3회이다.<sup>6)</sup> 고대 중원의 천자를 말할 때 흔히 三皇五帝를 말하곤 하지만 伏羲氏나 神農氏나 하는 이야기는 뒷날에 만들어진 것이거나 특정 지방의 신화가 윤색되어 뒤늦게 권위를 획득한 것이다. 경서의 공식 기록에서 첫 천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堯이다. 『尙書』는 요의 이야기로 긴 역사의 첫 장을 열고 있다.

堯라는 글자는 높이 쌓은 兀 위에 다시 土(흙)을 겹겹이 쌓아놓은 모습을 본뜬 것이라고 段玉裁(1735~1815)는 설명한다.<sup>7)</sup> 甲骨文에는 畺

5) 본 절의 내용은 줄져 『논어 속의 사람들, 사람들 속의 논어』(역락, 2022) 1부에 실린 내용을 수정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

6) ①『논어』 「雍也」 28장,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②「泰伯」 19장, “子曰 巍巍乎 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焉 子曰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唯天 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 巍巍乎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 ③「憲問」, 45장 “子路 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④「堯曰」, 1장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7)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堯 자에 대해 “兀者 高而上平也 高而上平之上又增益之以

어얇은 사람이 두 개의 흠덩이를 이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 토지신의 형상으로 보는 설도 있다. 金文에는 두 사람이 흠덩이를 지고 있는 모습이다. ‘堯’ 字의 기원이 이러하기에 자연스럽게 ‘매우 높다’는 뜻을 가진다. 그 이름 放勳도 ‘위대한 공훈’이라는 뜻이다.

제자 子貢이 ‘仁政’의 실체에 대하여 질문할 때 ‘博施濟衆의 정치’에 건주어 물은 일이 있다. 그때 공자는 ‘博施濟衆’을 두고 “요순도 오히려 힘들게 여긴 정치”라고 대답하였다.<sup>8)</sup> ‘仁政’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정치라는 뜻이다. ‘仁政’은 공자가 이상으로 삼아 평생을 외친 정치의 표본이다. 그런데 공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정치로 요순의 정치를 지목하고, 그 요체가 ‘박시제중’이라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상정한 仁政의 이해를 위해서도 堯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요구된다.

『상서』, 『사기』, 『논형』 등에 산재한 堯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다. 요는 하늘처럼 인자하고 산처럼 지혜로워, 사람들은 그를 태양이나 봄비-또는 구름-처럼 여겼다고 한다. 부유하였으나 거들먹거리지 않고, 존귀했으나 오만하지 않았다. 여덟 가지 색깔의 눈썹에 황색의 모자를 쓰고 검은 색의 옷을 입고서 흰 말이 끄는 붉은 마차를 탔다. 집의 이엉은 깎지 않고, 궁의 흠계단은 세 층이었다. 수레는 치장하지 않고 소박하게 유지했으며, 음식은 주로 곡식을 먹고 그릇은 토기를 사용했다.<sup>9)</sup>

한마디로 요의 모습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원시의 상제이다. 사람들이 그를 태양이나 봄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여겼다(就之如日 望之如雲)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요의 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준다는 뜻이다.

堯 是其高且遠可知也.”라고 설명한 바 있다.

8) 앞의 주 『논어』 「雍也」 28장 참조.

9) 요에 대한 전설은 이외에도 『竹書紀年』이나 『宋書』, 『淮南子』, 『十八史略』 등에도 두루 전한다.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말하자면 온 세상에 널리 베풀고 모든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것인데, 바로 앞서 말한 ‘博施濟衆’이다.

『淮南子』에서는 이를 두고 ‘한 마디 말로 萬民을 구제하였다.’고 표현하였다.<sup>10)</sup> 그러나 이것이 공자가 말한 ‘仁의 정치’보다 더 高遠한 어떤 단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자가 仁에 대해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라고 한 말을 보면 박시제중은 단지 仁政의 궁극적 완성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공자에게서 堯가 또 중요한 것은 ‘中’과 관련해서이다. 『논어』 「堯曰」 1장에는 요가 순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전해준 말 ‘允執其中’이라는 네 글자가 실려있다. 『상서』 「대우모」에는 이 말이 16자로 늘어나 실려있다. 이른바 十六字秘訣이다.

사람의 마음은 위험하고, 도의 마음은 알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오직 세심하게 살피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 中을 잡아야 한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堯의 시대에 新儒學에서 말하는 中의 개념<sup>11)</sup>을 운위하기는 어렵다. 다만 ‘운집기중’이라는 말이 맨 처음 실린 문헌이 『논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때의 중을 공자의 時中과 연결할 수 있다. 처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무엇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선입견이나 편향 없이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뜻이다. 『논어』와 『중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유가적 이상 정치에 있어서 中은 매우 중요하다. 군주로 하여금 그 나

10) 『淮南子』, “公正無私, 言而萬民齊.”

11) 심성수양론으로서의 中和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주자는 未發時의 中과 已發時의 和를 실현하기 위해, 미발시에는 存養의 공부를 이발시에는 省察의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中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라와 그 시대에 꼭 맞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힘과 정치적 균형감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允執其中인바, 바로 仁의 정치요 博施濟衆이다. 그 완성을 『대학』에서는 平天下라고 표현하였다.

요가 남긴 ‘윤집기중’이란 말에는 이처럼 『논어』, 『상서』, 『대학』, 『중용』의 요체가 오롯이 들어있다. 때문에 ‘윤집기중’은 이후 전근대적 왕조 시대가 끝날 때까지 동아시아 각국에서 군주는 물론이고 학자에 이르기까지 절대적 가치로 존송되었다. 때로 후대에 위조된 말이 아닐까 의심받기도 했지만, 中의 의미가 지니는 상징성과 위상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넓은 古經’이 사라진 유토피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표시한 희미한 지도라면, ‘中’은 그 지도 위에 堯의 이름으로 남겨진 돌도 없는 키워드이다. 仁의 정치를 외친 공자는 그 키워드를 읽어낸 첫 판독자이다.

## 2. 舜: 孝, 無爲, 그리고 君子

舜의 이름은 『논어』에 7회 나온다. 공자가 舜만을 호명한 것이 3회, 堯와 병칭한 것이 4회이다.<sup>12)</sup> 堯보다는 조금 많다. 『논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舜은 堯보다 훨씬 주목이 요구된다. 공자는 仁과 禮에 관한 자신의 정치와 철학을 피력할 때 孝를 몹시도 강조하였다. 『논어』에는 ‘孝’字가 19회나 쓰였다. 공자의 이 孝를 이해하기 위해 舜은 매우 중요하다.

12) ①「雍也」28, 「泰伯」19, 「憲問」45, 「堯曰」1장은 堯와 중복된다. ②「泰伯」20장, “舜 有臣五人而天下治 武王曰 予有亂臣十人 孔子曰 才難不其然乎 唐虞之際於斯爲盛 有婦人焉 九人而已.” ③「顏淵」22장, “舜有天下 選於衆 舉臯陶 不仁者遠矣.” ④「衛靈公」4장,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舜은 顓頊의 후손으로 매우 미천한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몰락한 가문의 떨거지란 뜻이다. 맹자는 순을 ‘東夷之人’이라고 하였는데,<sup>13)</sup> 역시 변두리 촌놈이라는 뜻이다. 볼 것 없는 시골구석의 몰락한 귀족 떨거지. 순의 정체성이다.

순의 아버지 瞽瞍는 盲人이라 전해진다. 그런데 『상서』와 『맹자』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전하는 기록을 볼 때 순의 아버지가 정말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고수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집안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

고수의 폭행에 관한 전설은 수백 수천 년 뒤 戰國時代 사람들에게도 회자될 정도로 반윤리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순에게 낚은 창고를 수리하라고 지붕에 올려 보낸 다음 사다리를 치우고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마당에 우물을 파라고 시키고는 흙을 덮어 生埋葬시키시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순의 전설과 관련하여 특히 『맹자』 등에 전하는 폭력은 단순 학대를 훨씬 넘는 것이었다.

게다가 순은 어린 나이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소년 가장으로서 歷山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雷澤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으며 河濱에서 도자기를 굽기도 했다.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학대와 착취를 순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견뎌내야 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고수는 진짜 맹인이라기보다 인간 사회의 보편적 윤리에 눈감고 사는 악인임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이름이었다고 보인다.<sup>14)</sup>

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고수가 맹인이었다고 전해지는 데에

---

13) 『孟子』 「離婁 下」 1장. “孟子曰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也.”

14) 이상 舜과 관련하여 『孟子』에 전해지는 여러 전설들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예문은 생략한다.

반해 순은 좌우로 들썩 네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고 『史記』는 전한다. 이를 重瞳이라 한다. 고수가 가지지 못한 눈까지 순이 가졌다는 뜻일까. 비범한 외모만큼 성품도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순수한 효성으로 독하고 못된 부모와 의붓동생을 감동시켰다.

순의 일화는 대개가 '순수한 孝'에 관한 것이다. 미천하기 짝이 없던 순이 요에게 발탁된 것도 순전히 저 효의 힘이다. 그래서 순을 두고 大孝라고 한다. 공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효를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아버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낸 자신의 개인적 아픔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대체적인 윤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효란 결국 부모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던가.

학단의 제자 有子가 효에 대해 '仁을 실천하는 근본(爲仁之本)'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래 효는 동양 사유의 주춧돌을 이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효의 위상은 실로 대단하여 유교가 권위를 유지하던 19세기 말까지 충과 효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효가 우선시될 정도였다. 그 문화의 시원에 舜이 있다.

孝가 아니더라도 『논어』와 관련하여 舜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無爲의 정치'와 '君子の 정치' 때문이다. 요와 순의 정치는 '無爲의 정치'로 일컬어진다. 무위의 정치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요임금처럼 '큰 덕을 밝힌다(克明峻德)'는 말만 내걸면 평천하의 이상이 절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無爲의 정치가 도덕의 천명 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면 동아시아 고대 정치의 이상은 허무한 것이 된다.

고대 이상 사회를 가리켜 흔히 '堯舜時代'라고 하지만, 사실 요와 순의

시대는 약간 다르다. 요의 시대에는 국가의 힘이 개인의 삶에 그다지 간섭하지 못했다. 저마다 생업에 충실하여 살면 그뿐 도덕도 권력도 무의미했다.<sup>15)</sup> 이러한 정치가 無爲라는 이름으로 개념화되어 동아시아 정치의 이상적 모델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지만,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모습이었던가는 참으로 모호하다. 堯를 기록한 선진시대 문헌 그 어디에도 요의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기술한 곳은 없다.

그에 비해 순의 시대는 사뭇 다르다. 순의 시대는 국가의 기본 요건들이 차차 갖추어져 나가는 모습이 한눈에 선하다. 국가 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와 덕목이 다듬어졌고, 교육과 농업 및 형법과 행정 등 직무에 따라 부서가 나누어졌다. 국토를 경영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벼슬아치들의 고과 평정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천문학 기술의 발달로 하늘의 운행이 인간의 시간 단위로 재구성되었다. 『상서』의 「순전」과 「대우모」에는 위에 나열한 여러 내용들이 장엄하고 웅대한 문체로 기술되어 있다. 그저 ‘큰 덕을 밝혔다(克明俊德)’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한 요의 시대의 정치와는 그 실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博施濟衆의 정치는 순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실체를 드러낸다.

요의 정치를 알 수 없는 지금으로선 無爲의 참뜻을 알기 위해 순의 정치를 주목해야 한다. 순은 경제와 국방, 교육과 법률과 같은 제반 국정을 자신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분야의 책임자를 가려 그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이 무위의 정치요, 동아시아가

15) 『論衡』 「藝增」에는 요임금 시대에 노인이 지어 불렀다고 하는 「擊壤歌」가 전한다. 그 노래에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노라.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서 밥 먹노라. 임금님의 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라.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 하였다.

꿈꾼 이상 정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첫 사례이다.

이러한 순의 정치를 두고 공자는 ‘그저 몸가짐을 공손하게 유지한 채 남쪽을 향해 앉아 계셨을 뿐(恭己正南面而已)’이라고 묘사하였다.<sup>16)</sup> 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자를 믿고 일임하는 순의 정치를 특징적으로 짚어낸 말이다. ‘큰 덕을 밝힌다’는 요의 정치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임금은 이상적인 건국이념과 윤리를 확립하고 각 분야 정치의 실제 시행은 담당 대신들이 주관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君子의 개념과 관련해서이다. 공자는 爲政者의 이상적 요건을 君子로 상정한 바 있다. 공자 학단의 교육 목표가 ‘군자형 지성인 양성’이기도 하다. 이 군자라는 인간 유형의 지향은 ‘그릇이 아닌 인간’이다. 세상의 모든 그릇에는 일정한 쓰임새가 있는데, 그릇처럼 일정한 쓰임새에 한정되는 인간은 소인이다. 군자는 그 일정한 쓰임새를 거부한다. 특정 방면에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全人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군자를 不器라고 한다.

그렇다면 不器君子의 정치는 무엇인가. 바로 전술한 바 ‘해당 분야의 책임자를 등용하여 그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다. 공자는 제자들이 邑宰를 맡아 나갈 때면 번번이 ‘실무는 유사에게 맡길 것’을 당부하곤 하였다. 위정자는 그 자신 不器의 全德을 지향하고 실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맡길 줄 아는 안목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그 사유의 원형태를 舜이 보여준 無爲의 政治에서 찾을 수 있다.

---

16) 『논어』 「衛靈公」 4장,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 3. 周公: 攝政과 代理, 三家와 관련하여

‘周公’이란 이름은 『논어』에 3회 등장한다. 그 가운데 1회는 ‘魯公’을 비롯한 周나라 公侯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1회는 확인하기 다소 애매하다.<sup>17)</sup> 주 무왕의 아우로서 주나라 건국에 공을 세우고 문물과 예악을 정비한 인물 ‘주공’이라고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것은 1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공자와 『논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찰이 요구된다.

공자는 만년의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더 이상 꿈에 주공을 뵈지 못하구나.’하고 자신의 노쇠함을 크게 상심한 적이 있다. 이는 ‘젊어서는 자주 꿈에서 주공을 뵈었노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내가 젊었을 적에 일찍이 꿈에서 周公을 뵈는 것은 그분의 道를 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랜 시간이 흘러 내가 다시 꿈에서 周公을 뵈지 못하니, 여기에서 내가 심히 노쇠한 줄을 알겠다.”<sup>18)</sup>라고 한 『正義』의 해석이나 “孔子가 젊은 시절에 자나 깨나 늘 주공의 도를 시행할 뜻을 품고 있었다.”<sup>19)</sup>라고 한 程子の 해석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공자가 만나 뵈기를 그토록 꿈꾸었던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주나라 문명의 상징인 周公이다. 그런 의미에서 周公은 어쩌면 공자와 『논어』 연구에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는 道나 天下觀 역시 周公과 무관하지 않다. 주공은 누구인가. 공자는 왜

17) ①『논어』「述而」5장, “子曰 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 ②「先進」16장, “季氏富於周公.” 여기의 주공은 ‘周나라 公侯’를 가리킨다. ③「泰伯」11장, “子曰 如有周公之才之美 使驕且吝 其餘不足觀也已.” 이 장의 주공은 확인하기 어렵다.

18) 『論語正義』, “我盛時嘗夢見周公 欲行其道 今則久多時矣 吾更不復夢見周公 知是吾衰老甚矣”

19) 『論語集注』, “程子曰 孔子盛時 寤寐常存行周公之道 及其老也 則志慮衰而不可以有爲矣 蓋存道者心 無老少之異 而行道者身이니 老則衰也.”

그를 그리도 애타게 찾았던 것인가.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주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주공의 이름은 且, 문왕의 셋째 아들이자 무왕의 아우이다. 주공은 주나라 건국 이전까지 문헌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다가 건국의 대업이 완성되어 갈 무렵, 무왕의 명을 받아 洛邑을 경영하는 인물로 堯의 전면에 등장한다.<sup>20)</sup>

「召誥」와 「洛誥」에 남은 기록으로 볼 때 주공은 형 무왕에게 가장 믿음직한 동지요 최고의 조력자였다. 천하 통일의 위업을 이룬 뒤, 긴 전쟁에 지친 형 무왕은 그만 병석에 누웠다. 주공으로서 형의 생사와 함께 주나라의 운명이 걱정되었다. 막 세워진 주나라는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였고, 은나라 백성들은 왕국의 재건을 은밀히 도모하였다.

간신히 이룩한 혁명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애가 탄 주공은 왕실의 조상 영령들에게 무왕의 목숨 대신 자신의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애걸하듯 기도하였다.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를 옥돌에 금글씨로 정성스레 새겨, 금궤에 넣고 금실로 단단히 묶어 보관하였다. 감동적인 우애의 이 祝冊文에 관한 이야기는 「金縢」에 상세히 실려 전한다. 하지만 주공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무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주공은 형을 도와 주나라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정작 나라를 받지 못하였다. 그 뒤 가까스로 강태공이 받은 齊나라 땅의 일부를 할양 받아 曲阜에 봉해졌다. 그 나라가 바로 魯나라이다. 하지만 자신의 나라에 내려가지 못하고 洛邑에 남아 무왕을 도와야 했는데, 건국 초기의 불안함을 수습하기 위해 형제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

20) 주공에 관한 행적은 『書經』 「周書」의 여러 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본고에서 해당 원문을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는다.

그만 무왕이 눈을 감은 것이다.

무왕의 죽음은 오히려 주공이란 사람의 크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무왕의 뒤를 이어 등극한 成王이 겨우 11세의 어린 왕이었기에 천자의 자리를 노리는 숙부들 사이에 일대 혈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주공은 형 무왕의 유언을 지켜 끝까지 어린 성왕을 보호하였다. 철모르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역사의 여러 패륜 숙부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주공은 몸소 국정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손보아 마침내 틀이 잡힌 주나라를 성왕에게 온전히 돌려주었다. 그날의 역사가 「無逸」과 「君奭」에 남아 수천 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생생한 감동을 전한다. 제갈량의 「出師表」가 불변의 충의를 담은 천하 명문장으로 일컬어지지만, 철부지 어린 군주를 향한 자상한 충정과 의리의 원류는 실로 주공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결국 혁명의 기치를 세우고 출정하던 전반부를 제외하면 「周書」의 주요 부분이 거의 주공의 활동과 치적을 서술한 내용이다. 「주서」의 주인공은 사실 문왕이나 무왕이 아니라 주공이라 하겠다. 요컨대 문왕과 무왕이 창업 군주라면, 주공은 아버지와 형의 나라를 완성시킨 건국의 완성자다. 주공 없는 문왕과 무왕은 상상할 수 없다.

이제 남은 하나. 공자는 무엇 때문에 주공을 그토록 애타게 찾았는가? 주 문명의 재건을 이룩할 성인을 갈구한 것인가? 논의를 계속 전개하기 위해 다시 堯舜과 禹의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堯-舜-禹로 이어지는 시대가 ‘三代’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盛世로 칭송받은 것은 共和의 힘이겠지만, 攝政과 禪讓의 힘도 그 못지않게 크다. 섭정은 舜이 堯를 이어, 禹가 舜을 이어 왕위에 오른 방식으로, 군주가 몸소 국정을 돌볼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이다. 堯는 자신이 늙어 더 이상 政務를 다스릴 수 없게 되

자 어전회의에서 舜을 등용하여 이러한 형태의 정치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상서』에 기술된 순의 업적 대부분은 사실 섭정 기간에 이룬 것이다. 禹도 마찬가지이다. 부친 鯀이 4대 반역자로 몰려 羽山에서 舜의 손에 처형당했지만, 기구하게도 순에게 등용되어 섭정을 하였다. 禹貢이라는 未曾有의 治水 사업 역시 섭정 기간에 이룬 공적이다.

뒷날 이 섭정의 전통은 다소 변형되어 주공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형인 무왕이 죽자 주공은 어린 조카 성왕을 대신해 스스로 代理者가 되어 섭정하였는데, 주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주공은 섭정을 끝내고 조용히 물러났다. 요·순·우 시대의 대리와 섭정을 주나라 현실에 맞추어 계승한 것이다. 이것을 代理라고 한다.

왕위의 세자 승계 방식은 때로 국가를 치명적인 위협에 빠뜨린다. 세자가 너무 어리거나 자력 미달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섭정은 매우 유용하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섭정자의 인성과 자질이다. 섭정자는 왕의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위협자이기도 한 때문이다. 섭정기의 주공이 끊임없이 의심과 견제를 받았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이런 측면에서 주공의 代理는 섭정의 문화 전통에 하나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한 셈이다.

공자의 시대에 三桓<sup>21)</sup>, 그중에서 특히 季氏 일가의 힘은 막강했다. 삼환은 모두 노나라 公室의 혈족이었다. 따라서 노나라 임금이 어리거나 무능하다면 그들이 노나라 임금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을 무조건 무도한 행위라 비난할 수 없다. 주공의 선례처럼 계씨의 정치 역시 代理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여 방식과 공

---

21) 三桓: 노나라 桓公의 네 아들 중 맏이는 莊公이 되었고, 나머지 세 아들이 孟孫氏, 叔孫氏, 季孫氏가 되었는데 이들을 '삼환'이라 한다. 노나라를 좌지우지한 세 대부의 가문이란 뜻에서 흔히 '三家'라고도 한다.

실을 대하는 태도이다.

계씨를 비롯한 삼환은 노골적으로 노나라 공실을 우롱했고, 국정을 농단했다. 어린 임금 哀公을 겁박하여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가의 재화를 독점하였으며, 주제님께 태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모자라 天子의 廟廷에서나 쓸 수 있는 儀禮를 자신들 私家の 朝廷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군주를 능멸하고 권력을 가로챈 무도한 반역일 뿐 결코 섭정이나 대리가 아니다.

좀처럼 안정과 변영을 구가하지 못하고 열강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던 노나라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또 정공의 아들로서 겨우 네 살에 임금 자리에 올라 평생을 두려움에 떨었던 애공을 생각해 보면, 왜 공자가 그토록 三桓을 질타하며 애타게 주공을 찾았는지 알 수 있다. 공자의 눈에 주공은 요순우를 이은 성인이고, 계씨가를 비롯한 삼환은 그 겉모습만을 빌어온 도적일 뿐이다.

### III. 先秦時代 문헌자료와 『논어』 속의 인물

『논어』 속의 인물 연구는 단순히 그 인물의 행적에 관한 조각 정보를 모아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 인물을 통해 공자의 사유와 당시 시대상을 깊이 읽고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 앞의 절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헌들이 있다. 三經, 『춘추』, 『예기』, 『맹자』, 『순자』, 등의 1차 자료와 『장자』, 『한시외전』, 『國語』 등을 비롯한 2차 자료이다.<sup>22)</sup>

22) 1차 문헌자료와 2차 문헌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우선 임의적으로 설정해 보았다. 선진 시대에 이루어진 유가 문헌을 1차 문헌자료라

## 1. 先秦時代 1차 문헌자료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으로 가장 먼저 꼽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三經이다. 이 중 『易』은 禹, 文王, 周公, 孔子와 관련한 짧은 전설을 전하고 있지만 經文 자체에는 이들과 관련해 특별히 이렇다 할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詩』는 그렇지 않아 단편적이지만 經文 자체에 유의미한 정보가 단편적이거나 실려있다. 대표적으로 주나라 왕실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文王의 가계와 탄생 및 건국과 정치 이상, 궁중 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大雅의 「文王」·「思齊」·「皇矣」·「靈臺」 등의 편에, 武王에 관한 정보를 「大明」·「下武」·「文王有聲」·「執競」·「武」·「桓」 등의 편에, 周公에 관한 정보를 「破斧」에 담고 있다. 夏·殷에 관한 정보도 간략히 있어 湯에 관한 정보를 商頌 「那」와 「玄鳥」 등 편에, 禹에 관한 정보를 商頌 「長發」 등 편에 남기고 있다.

『書』는 堯, 舜, 禹를 비롯하여 湯, 文, 武, 周公, 伊尹 등 고대 聖王과 賢臣으로부터 周나라 建國主 一家에 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남기고 있다. 그들의 정치 이상과 治績, 유교 정신 형성에 영향을 준 주요 사상에 이르기까지, 공자가 말하는 ‘도’와 ‘전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찰이 필요한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공식 역사 기록(書)’으로 증언하고 있다.

三經 다음으로 공자와 『논어』 속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1차 자료가 있다면 『春秋左傳』(이하 『좌전』)이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

고 하였다. 선진에서 漢代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설이 각색되어 수록된 문헌, 1차 문헌자료의 문장이 편집되어 수록된 문헌, 특정 작가가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한 문헌을 2차 문헌자료라고 하였다. 史料로서 신빙성과 고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혀둔다. 『孝經』, 『家語』, 『史記』는 또 따로 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隱公 원년(BC722)으로부터 시작된 『좌전』의 기록에는 西周 이전의 고대 성왕과 현신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공자(襄公 22年 誕)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기인 襄公 즉위년인 BC572에서 哀公이 눈을 감은 BC468년까지의 기록에는 공자와 『논어』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탐구가 필요한 주요 인물들이 거의 모두 등장한다.

이 시기의 기록은 『좌전』의 거의 2/3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여기에는 차로(6회), 자공(7), 염구(9), 子張(1), 季康子(11), 陽虎(31), 公山不狃(5) 子服景伯(8), 吳孟子(1), 孟公綽(1) 등은 물론이고,<sup>23)</sup> 南子(1), 영공(1), 史鱣(1), 蘧伯玉(3), 宋朝(1), 裨諶(4), 行人 子羽(17), 桓魋(20여 회), 管仲(1)<sup>24)</sup> 등 노나라 외 인물들도 대거 등장한다. 그 가운데 晔嬰(平仲)은 20여 회, 子大叔은 50여 회, 鄭子產의 이름은 100여 회 이상 등장하여 춘추 정국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또 그 행적을 자세히 추적할 수 있다.<sup>25)</sup>

『춘추』만큼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禮記』를 꼽을 수 있다. 『예기』에서 고대 성왕과 현신에 관한 정보는 얻기 어렵지만, 주나라 건국 주역들에 대한 정보는 소상히 얻을 수 있다. 특히 文王의 일상 예절에 관해서는 「文王世子」에서 소상히 다루고 있다. 「文王世子」가 온전히 文王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 데다가 또 주로 예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先秦 문헌 가운데 文王에 대해 이만큼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은 없다. 아울러 「禮」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周公

23) 주요 제자 가운데 顏淵, 閔子騫, 仲弓, 南容, 冉伯牛, 公冶長, 宰我, 漆彫開, 子遊, 子夏, 曾子, 有子, 公西赤 등은 보이지 않는다.

24) 管仲의 경우는 『춘추좌전』에 총 12회 등장한다. 활동 시기가 워낙 앞서서 그렇다. 양공 이후로 등장은 1회에 그친다.

25) 괄호 안의 숫자는 단순한 검색 횟수이다. 등장하는 사건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고찰해 본다면 그 중요도나 비중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단순한 검색 횟수만으로도 일정한 상징성은 간취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과 관련한 정보(16개 단락)를 소상히 얻을 수 있다. 또 喪服과 喪制의 변화, 조정 문화와 朝服의 변화, 장례와 弔問 예절 등과 관련하여 召公(3)과 季康子(4), 哀公(‘哀公問’ 이전까지만 9개 단락)이 등장한다. 특히 哀公에 대해서는 「哀公問」 章이 마련되어, 적어도 예에 관해서는 공자가 哀公의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온다.

이 외에도 숙손무숙(2), 거백옥(2) 등 당대에 활약했던 주요 정치인들과 예에 대해 문답한 기록들이 실려있다. 주요 제자들과 예에 대해 문답하는 문장들도 적지 않아 顏淵(3), 子路(11), 子貢(16), 子游(1), 宰我(1), 子游(13) 등과 관련한 문답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예기』에는 『좌전』과 달리 후기 제자들과 학문적 성향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다량 실려있다. 有子(8), 公西赤(1), 子張(9), 子夏(20) 등 후기 제자군의 주요 인물들과의 문답들이 실려있는데, 이 중에서도 증자의 경우는 「曾子問」 이전까지만 27개 단락의 문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sup>26)</sup> 대부분 『좌전』을 비롯한 『춘추』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후기 제자들에 관한 내용인 데다, 공자 사후 禮學의 흐름 및 학단 제자들의 성격과 학문 지향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중요성이 작지 않다. 도식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등장하는 단락 횟수에서 이미 예학 방면의 위상이 대략 가늠될 정도이다.

『맹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1차 자료이다. 공자 연구에서 『맹자』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맹자 스스로 공자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표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 『맹자』에는 堯, 舜, 禹, 稷, 皋陶, 湯, 伊尹, 柳下惠, 伯夷, 文王, 武王, 周公 등 고대 성왕과 현신 및 주나라 건국 주

26) 제자들의 경우는 상호 간에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상기한 단락들 역시 하나의 사건을 다룬 문장에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각각 다른 단락에 이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지점이 상호 겹치고 있다는 뜻이다.

역들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들에 관해 공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생생한 증언과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맹자』는 공자와 『논어』 속의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어느 문헌보다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맹자가 『詩』·『書』에 매우 정통했다는 것은 『맹자』 전편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는데, 맹자가 전하는 여러 전설과 평가는 『詩』·『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일반적 해석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 더구나 舜과 禹, 伊尹과 柳下惠에 대한 전설과 평가는 『맹자』 이외의 여타 문헌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관련 기록들은 모두 해당 인물들의 정체성을 유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된다.

공자 학단의 제자들에 관한 전설과 평가는 더욱 그렇다. 그중에서도 子貢(6년 여묘), 有若(공자와 닮음), 曾子(효의 전통)에 관한 내용들은 특히 『맹자』에서 전하는 증언들로, 매우 중요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曾子和 관련해 당시 列國의 지성계에 널리 퍼졌던 소문과 그에 대한 해명은 후대 학자들에게 증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자못 간단치 않은 주제를 던지고 있다. 이는 崔述(1740~1816)의 『洙泗考信餘錄』에서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고 있다.

荀子도 공자 계승을 스스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荀子』는 문체나 편찬 방식부터 앞서 언급한 문헌들과는 사뭇 다르다. 堯·舜·禹·湯·文王·武王의 경우 그들의 생애나 정치에 관한 구체적 기술보다 대개 상징적 의미로써의 단순 언급이나 상투적 호명이 주를 이룬다. 예외적으로 「堯問」에서는 堯 및 周公에 관한 일화와 訓辭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맹자』에서와 달리 『순자』의 경우는 그 문체가 『書』와 심각하게 이

질적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자의 제자들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子道」에 子貢·子路·顏淵이, 「法行」에 曾子和 子貢이 공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실려있다. 하지만 역시 그 문체와 대화 주제가 『논어』와 심각하게 다르다. 이러한 기록들이 실린 그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다만 子貢과 子路는 주로 忠孝나 군자의 도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몰라 공자에게 꾸지람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顏淵과 曾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여, 학단 제자들의 위상과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만하다. 이 밖에 「大略」과 「宥坐」 등에도 자공과 자로가 잠깐씩 등장하는데, 그 이미지는 대개 前述한 대로이다.

또 『예기』의 경우처럼 哀公에 대한 정보가 많이 기술되어 있어 제31편 「哀公」에서는 총 6개의 장에 걸쳐 애공의 질문을 실어놓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례적으로 定公과 顏淵의 대화를 실어놓고 있는데, 선진 문헌 가운데 안연이 임금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소개한 드문 예이다. 이 외에는 주요 제자들의 이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子張·子游·子夏는 그들이 賤儒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름이 한 번 언급되는 정도이고, 子夏가 몹시 가난했음에도 벼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짧은 일화가 실려있는 정도에 그친다.

## 2. 先秦時代 2차 문헌자료

2차 문헌자료로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문헌은 『莊子』이다. 『장자』에는 『논어』 속 인물들이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章 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內篇이다. 「逍遙遊」와 「齊物論」에는 堯舜의 양위와 許由의 일화

가 실려있다. 「人間世」에는 ①안연과의 대화, 葉公과의 만남, ②顏淵과 蘧伯玉의 대화, ③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楚狂接輿와의 만남이 실려있다. 「德充符」에는 ①鄭子產의 일화, ②哀公이 공자에게 자문을 구한 대화, ③衛靈公의 일화가 실려있다. 「大宗師」에는 ①堯와 許由의 전설, ② ‘子桑戶、孟子反、子琴張’ 三人과 子貢, 그리고 공자의 대화, ③顏淵과의 대화 2단락, ④子輿와 子桑의 대화가 실려있다. 「應帝王」에 楚狂接輿의 일화가 실려있다.

다음은 外篇이다. 「天地」에는 자공과 漢陰老人의 일화가 실려있다. 「天道」에는 周室에 서적을 보관할 때 子路와의 대화, 堯의 양위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天運」에는 子貢과 老聃과 만남,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안연과 師金의 만남이 실려있다. 「秋水」에는 匡을 주유할 때 자로와의 대화가 실려있다. 「至樂」에는 안연, 자공, 공자의 대화가 실려있다. 「達生」에는 공자와 안연의 대화, 桓公과 管仲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山木」에는 ①陳蔡에서 고생할 때 안연과의 대화, ②「田子方」에 자로, ③안연과의 대화, ④장자가 哀公을 만난 이야기가 실려있다. 「知北遊」에 안연과의 대화, 罔象의 대화가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雜篇이다. 「徐無鬼」에는 桓公과 管仲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則陽」에는 楚나라에 갔을 때 자로와의 대화가, 「外物」에는 요의 양위에 관한 일화가 실려있다. 「讓王」에는 ①原憲과 자공의 이야기, ②안연, 자로, 자공이 공자를 모시고 陳蔡에서 고생하던 이야기 2단락, ③요가 허유에게 양위한 전설과 순이 北人無擇에게 讓位한 전설, ④탕의 伐桀과 혁명 이후 卜隨와 瞿光에게 양위한 이야기 각 1단락씩, ⑤伯夷叔弟의 전설이 실려있다. 「盜跖」에는 공자가 안연과 자공을 대동하고 도적과 만난 전설이 실려있다. 「列禦寇」에는 애공과 顏淵과의 대화가 실려있다. 「漁父」에는 공자가 緇帷의 숲에 노닐 때 자로, 자공, 안연이 어부와 만나

나는 대화 2토막이 실려있다.

특이하게 주요 제자임에도 『장자』에는 이름을 그다지 올리지 않은 인물들이 있다. 염구는 『장자』 전편에 걸쳐 단지 1회만 등장하고, 閔子 역시 1회(애공과의 대화에 등장)하며, 宰我是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후기 제자, 그중에서도 뒷날 宗統을 이었다고 평가받는 증자는 「寓言」과 「讓王」, 「外物」에 3회 등장하지만 재미있게도 모두 공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다. 특히 「外物」에는 이름만 인용된 정도이다. 후기 제자 중 또 한 사람의 주요 인물인 子張도 「盜跖」에서 滿苟得과 대화하는 장면에 1회 등장할 뿐이고, 子夏, 子游, 有若 등은 이름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논어』 속의 사람들을 고찰하는 자료적 관점에서 의외로 『韓詩外傳』은 『순자』보다 더 긴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때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시외전』에는 湯, 伊尹, 比干, 箕子, 文王 등과 같은 聖王賢臣에 관한 이야기가 두루 나온다. 그중에서도 伯夷叔弟와 周公에 관한 일화는 선진시대 다른 문헌에 비해 제법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다. 권2에서 子路의 입을 통해 백이를 義의 상징적 인물로 그려내는 부분은 매우 독특하며, 권3에서 백이에 관해 기술한 부분은 『맹자』의 문장과 매우 흡사하여 참고해 볼 만하다. 또 권7에서는 공자와 자로의 대화에서 忠節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권10에서는 晏嬰의 입을 통해 廉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공자 이래 유가에서 바라보는 伯夷에 대한 이미지를 『한시외전』은 ‘淸-廉-忠-義’라는 키워드로 보여준다.

周公의 경우 권3에는 武王, 太公과 함께 3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 노나라에 봉해진 伯禽에게 경계하는 말이 실려 있다. 이는 선진시대 다른 문헌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기 희귀하고 특이한 내용들이다. 이 외에도 定公, 哀公, 桓公, 管仲, 莊公, 崔杼, 晏嬰, 衛

靈公, 楚狂接輿 등 공자 시대의 열국의 인물들과 관련하여 다른 문헌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장들이 적지 않다.

공자의 제자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顏淵이 스승인 공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나눈 문답 7개 토막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여타 문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子路, 子貢, 曾參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 原憲, 南容, 子賤, 巫馬期와 같이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자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문장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다. 특히 子路和 子貢의 출신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 冉求의 성격과 정치적 지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 子夏의 詩學과 정치 지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 자하와 증자가 지향하는 학문 성격의 차이를 짐작케 하는 내용 등 학단 제자들과 관련하여 여러 지점에서 적잖이 중요한 정보를 남기고 있다.

『한시외전』이 문헌자료로서 얼마만큼 자료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따져볼 문제이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서경』, 『논어』, 『맹자』 등 여러 유가 문헌은 물론 『莊子』를 비롯한 제자서와 그 문장이 유사한 지점이 매우 많다. 게다가 『사기』를 비롯한 후대 문헌에 기술되는 여러 고사가 『한시외전』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서 그 위상과 상징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시대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國語』도 재미있는 자료이다. 周 穆王의 시대부터 각국의 역사를 각각 기록한 이 문헌에는 주로 주나라 열국의 정치인들과 그들의 입으로 피력한 정치 사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로 가득하다. 이중 권5 「魯語」에는 子服景伯이란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는 단락이 1개 있고, 季康子가 田賦를 단행하고자 염구를 시켜 공자를 설득하려 하자 공자가 염구에게 한 말이 실려 있다. 권6 「齊語」에는 桓公이 패자가 되는 과정을 담아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그 문장이 『管子』 「小匡

篇』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齊語」임에도 제나라의 중요한 정치가晏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은 특이하다. 그 외 권14 「晉語」 말미에 鄭子產 관련 내용이, 권18 「楚語 下」에 葉公 관련 내용이 실려있어 참고할 수 있다.

#### IV. 나가며

본고는 『논어』 인물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論語』의 탄생 과정과 名義에 대한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제자와 사람들 속의 공자’에 대한 의미를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논어』 속의 사람들로 접근함에 있어 우선 고대의 聖人으로부터 첫 걸음을 떼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과 시도에서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고대의 성인 및 주나라 건국 주역인 ‘堯와 舜과 周公’이라는 인물을 추적하였다. 선진 시대 문헌에 남은 여러 기록들을 추적하여 堯에게서는 人政과 博施濟衆, 그리고 中이라는 개념을 찾아 조명하고, 이어 舜에게서는 孝, 無爲 政治, 君子 정치의 개념에 대해 그 원형과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주공에게서는 攝政의 전통 속에서 代理 정치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三家에 대해 공자가 보인 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밝혔다. 본고에서 堯와 舜과 周公을 통해 밝힌 정치 철학이나 개념들은 모두 『논어』의 중핵들로, 공자 연구를 위해 반드시 깊은 탐색과 고찰이 요청되는 것이다. 인물 연구의 필요성은 이로써 증명된다고 하겠다.

『논어』 속 인물 연구는 『논어』를 비롯한 선진 시대 문헌자료 검토와 고찰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해당 문헌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

로 본고에서는 각 문헌에 대한 정밀한 탐색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목적이다. 이 때문에 본고는 관련 정보의 집성과 치밀한 고증을 하지 못하고 인물의 등장 횟수와 관련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선진시대 문헌자료의 성격에 따른 인물 정보의 수록 양태는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일정한 의의는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논어』 인물 연구의 첫걸음이다.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 본고에서 언급한 선진 시대 문헌들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고, 본고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先秦 兩漢 시대의 문헌들 중에도 반드시 고찰을 요하는 문헌들이 적지 않다. 주요 注釋書 고찰도 필요하다. 『논어』가 나온 이래 공자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주로 경학 방면에서 注釋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이미 元明 이래로 『논어』 인물 정보를 고찰한 연구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 속의 중요한 저술들도 적지 않다.<sup>27)</sup> 이들에 대한 검토와 고찰, 그리고 각 문헌들의 기록들을 상호 비교 검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하는 일은 모두 긴 시일을 요하는 지난한 작업이라 예상된다. 과제로 남긴다.

---

27) 『논어』 인물 정보를 고찰한 역대의 저술들을 일일이 예거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 明나라 薛應旂(1500~1575)의 『四書人物考』, 李卓吾(1527~1602)의 『七十二朝四書人物演義』, 陳禹謨(1573~1620)의 『四書名物考』, 鍾惺 增訂, 黃澍 參訂의 『增補四書人物聚考』, 淸나라 江永의 『四書古人典林』, 臧志仁의 『四書人物類典串珠』 등이 대표적이다.

## 〈참고문헌〉

### 원전

- 『論孟人物類聚』, 규장각 소장.  
李光靖, 『顔子』, 안동국학진흥원 소장.

### 역저서 및 논문

#### 한국(가나다 순)

- 김경옥, 「門弟子 冉有에 관한 小考」, 『대동철학』 12집, 대동철학회, 2001.  
김기수 외, 『공자세가 중니제자열전』, 예문서원, 2003.  
김시천, 『논어, 학자들의 수다』, 2016.  
김용록, 『도올 논어』, 통나무, 2000.  
신광철, 『공자와 열두 제자』, 당신의 서재, 2018.  
신동준, 『공자와 그의 제자들』1·2, 한길사, 2022.  
안성호, 「논어에 나타난 孔門弟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 1984.  
안성호, 「논어에 나타난 공무제자에 관한 연구」, 『원광한문학』 2집, 원광한문학회 1985.  
윤종섭, 「공문제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1998.  
이갑규, 「공자 제자들의 생애 논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 2015.  
이규필, 『논어 속의 사람들, 사람들 속의 논어』, 역락, 2022.  
이성규, 『공자: 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88.  
이재하 역, 『수사고신여록』, 한길사, 2009.  
편집부, 『72공자제자』, 동신출판사, 1992.

#### 외국(연도순)

- 徐楚畹, 『四書人名瘦詞』, 掃葉山房, 1917.  
諸橋轍次, 論語人物考, 春陽堂書店, 1937.  
H. G. Creel,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New York, John Day Co, 1949.

- 田島道治, 『孔子: その人とその伝説』, 岩波書店, 1962.
- 姜可久, 『四書人物輯略』, 廣文書局, 1977.
- 高專誠, 『孔子・孔子弟子』, 山西人民出版社, 1989.
- 蔡仁厚, 『論語人物論』, 1996.
- 仇德哉, 『四書人物』, 臺灣商務(英文), 1998.
- 高專誠, 『孔子和他的弟子們』, 中國書籍出版社, 2015.
- 卞朝寧, 『論語人物評傳』, 江蘇人民出版社,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s in 『The Analects(論語)』,  
and the Literature of the Pre-Chin Dynasty(先秦)

Lee, Gyu-Pil \*

This thesis argues for the necessity of researching characters appearing in 『The Analects(論語)』. To this end, the process of generat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was examined. The name of the book was examined from a new perspective, and based on this, the meaning of Confucius(孔子) with disciples and people was illuminated.

As the first work, we considered the figures of Yo(堯), SHun(舜) and Zhugong(周公), the ancient saints that Confucius most admired. Through this work, I discovered and illuminated the meaning of the benevolent rule(仁政), the meaning of saving all the people(博施濟衆), and the concept of golden mean(中) in Yo. I discovered the meaning of filial piety(孝), the meaning of having governed efficiently without exertion(無爲政治), and the concept of a gentleman(君子) in SHun. In the tradition of regency(攝政), the meaning of politics on behalf of the king(代理) was found in Zhugong. Through this consideration, I was able to understand Confucius' attitude toward Samga(三家-the three powers representing the Roe(魯) state).

The study of characters appearing in 『the Analects』 should begin with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he pre-Chin Dynasty(先秦). However, the scope of these studies is too wide. This paper does not conduct a precise search for each literature. Instead, I want to look at the overall situation. This is

---

\* An associate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E-mail: 1900908@knu.ac.kr

because the purpose is to share awareness of necessity. It is judged that this alone has a certain significance.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of characters in 『The Analects』. For research,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one by one.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review commentaries representing academia. Furthermore, major research writings since the Yuan(元) and Ming(明) dynasties must be considered. It takes a long time to compare the records left in this much literature with each other. I hope to solve the research in this regard in a follow-up task.

### **Key Words**

Confucius, The Analects(論語), Disciples(弟子), Yo(堯), SHun(舜), Zhugong(周公), The literature of the pre-Chin Dynasty(先秦)

논문접수일: 2023. 12. 10, 심사완료일: 2023. 12. 22, 게재확정일: 2023. 12. 31.

